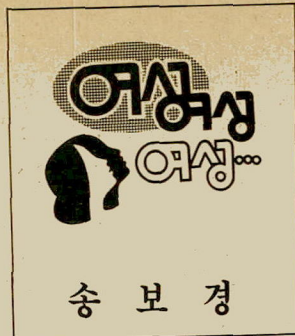


봄의 대학 마당은 노란 꽃 붉은 꽃이 어울려 눈부시도록 아름답다.

대학을 졸업하고 발령을 기다리던 두 여성이 죽음을 택했다는 기사를 본 날 꽃밭에서 이야기하는 여학생들이 유난히 안쓰러워 보였다.

그 여학생들은 두 선배여성들이 직장을 기다리다 죽음을 택할 만큼 급박한 상황을 자기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리라.

89.4.23



않고 “이주머니”라며 천연스럽게 부르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관의 태도이다.

대학에 다닐 때 민족과 민족을 외치며 스포츠와 섹스가 나라를 망친다고 주장하던 여대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향락산업을 조장하고 문화의 외세종속화를 부추기는 주간지 기사를 써야 하는 현실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야 할까.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얼마후 자신의 생존을 가

취업 경쟁과 불평등 규칙

그러나 이 절박한 상황은 정권타도를 외치는 여대생들에게도 꽃밭에 앉아 멋진 남자가 자신을 안아 가기를 꿈꾸는 여대생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현실이다.

체제가 어땠던 인간은 생존경쟁에 이길 수 있어야 살아남는다.

우리는 공평한 경쟁규칙을 만들자고 할 수 있어도 경쟁이 없는 사회에 살 수 없으며 누구를 위한 규칙이냐를 따질 수는 있

어도 규칙이 없는 사회에선 살 수는 없다.

사회의 많은 명문화된 규칙들이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고 무언의 규범들이 여성들의 행위를 속박한다.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대학에서조차도 직장에서 취직 의뢰가 오면 1등한 여학생보다는 3등한 남학생을 추천하는 것이 현실이다.

백화점 사기세일을 진술하는 단체 대표에게 조금도 주저하지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민족을 위해 자기희생을 감수 하던 여학생이 졸업 뒤 자기좌절에 부닥치는 것을 극복하려면 우선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준비, 공정성을 따질 수 있는 탄탄한 지적훈련을 했으면 한다.

살아남아야 개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몇 배의 노력을 해서 다방면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서울여대 사회학과 교수〉